

**특우 컬럼**

최후의 1인

주일 3부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던 중, 김
종일 장로가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성전을 신축하다가 부도가 났대요. 그러자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떠나 버렸대네요. 목사님이라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부도를 막으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라고 답했다.

지도자는 책임자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왔다고 도망쳐서야 되겠는가.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쳤다. 책임자로서 끝까지 배와 함께했다면 아까운 어린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느헤미야 6장을 보자. 무슨 영문인지 제사장 스마야는 두문불출했다. 이에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가자 그는 말한다. “오늘 밤 적군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당신과 제가 성전 안에 있는 외소에 들어가 문을 닫읍시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외소’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 분명 목숨은 건질 수 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그의 말이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느 6:11). “나는 이 백성의 리더다. 리더가 어떻게 이 큰일을 앞두고 도망가겠는가?” 한 것이다. 알고 보니 이것은 대적들에게 뇌물을 먹은 스마야의 계략이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전쟁이 났을 때 도망쳤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벌써 먹혔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국민을 독려하며 나라를 지켰기에 ‘채플린’에서 ‘처칠’로 이미지를 바꾸며 열강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장기판에서 왕만 잡으면 경기는 끝나는 것 아닌가.

언젠가 교회에 강패가 쳐들어왔다. 모양새 자체가 두려움을 줄 만했다. 그들은 옆의 한 장로의 안경을 빼앗아 짓밟아 깨뜨려 위협했다. 그때 나는 앞의 도자기를 그들이 있는 벽을 향해 던지며 탁자 위로 달려가 그들의 목살을 잡았다. “네깃 것들이 무서웠으면 목사안 했어.” 내 행동에 그들은 당황했고, 무릎을 꿇었다.

지도자는 어려운 상황에 최후의 1인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한 시대를 마감한다는 것은 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삶은, 역사는 늘 계속되기 때문이다. 태어나고, 죽고, 세대가 이어지며 계속되기 때문이다.

우리 서울교회는 이제 28년의 88체육관 시대를 마감한다. 돌이켜보면 1991년 겨울, 올림픽공원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는 88체육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한동안, 땅끝예수전도단 본부가 위치했던 강남꽃상가 7층에서 예배를 드렸다. 인터넷 예배가 불가능하던 시절이었기에 우리는 비록 비좁긴 했으나 그곳에 모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었다. 예배가 끝나면 7층 성전이 가득 찬 성도들의 열기로

이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감당하려는 우리 예수중심교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다. 목사님이 자주 부르시는 찬송처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한다. 그 길, 바로 주님이 가셨고, 그의 제자들과 수많은 믿

루라는 한 나라에 성령의 불을 던지는 역사적인 일이다. ‘목사님이 가시니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역사해주셔야 하고, 모든 준비에 조금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떠한 안전사고도 나서는 안 된다. 악한 것들이 횡방하는 역사가 많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 믿는다. 지금까지 수많은 집회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은혜를 주시지 않은 적이 없다. 사람이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비바람이 몰아치고 횡방자들이 날뛰건, 하나님께서는 비바람을 멈춰주시고, 횡방자들의 발호를 잠재우시며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88체육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후끈거리던 기억이 생생하다. 올림픽공원 시대를 마감하고 땅끝예수전도단 건물에 들어가 절치부심 기도하며 1992년 메인스타디움집회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88체육관에서 세계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제 88체육관 시대를 마감하며 당분간 우리는 인천교회에서 위생 및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예배를 이어가야 한다. 시간과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의 직무를 계속할 것이고, 세계선교의 사명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당장 이번 달에 진행될 페루집회, 그리고 다음 달에 일본 연합집회가 있다. 또한 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도 진행할 것

음의 선전들이 갔던 길, 그리고 우리 교단이 목사님과 함께 40여 년 가고 있는 이 길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환난과 고통이 따르다 해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가야 한다. 우리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길이라면,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는 길은 시간, 거리 불문이듯,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

페루집회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과 성도들의 헌물이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집회이다. ‘페

영광을 나타내셨다. 때로 비를 뒤집어쓰고, 사람이 모이지 않아 당혹스러울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조건에 상관없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목사님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 영적 전쟁에 임하시는 것이다.

서울성전 이전의 역사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을 믿는다. 목사님의 건강과 서울성전 이전, 폐루집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페루집회를 위한 21일 작성기도
8월 14일(월) ~ 9월 3일(주일)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6:10)

매사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살라

“I don’t know the second best(나는 차선을 모른다)! I only know the best(나는 오직 최선 밖에 모른다!)”
목회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잘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임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선은 없다
오직 최선뿐이다

제가 심비(心碑)에 간직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 10~12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눅16:10~12).
‘제가 예수님보다 큰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요14:12)’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세계를 교구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말씀하셨듯이 하셨을 겁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마25:30).
그래서 저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폭우가 쏟아지니 모든 현지 목회자들이 단상 아래로 비를 피해 숨거나 차를 타고 자리를 뜰 때도 저는 통역관들을 이끌고 속옷이 다 젖도록 비를 다 맞으며 육성으로 설교를 했고, 또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려던 현지 목회자들이 족장의 장례식에 모두 빠져나가 몇 사람밖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미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기도원 집회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설교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상예배를 드릴 때 ‘예전 것 하나 틀면 되겠지.’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 하나의 영상을 고르기 위해 밤이 맞도록 영상을 보고 또 봅니다. 그리고 고른 영상을 예배시간 전까지 수정합니다. 영상팀의 고생이 많지요.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늘 말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짧은표는 시간과 정비례하는 법, 우리 직원들도 ‘명작=최선’임을 알기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은 제 인생철학이기도 합니다. 저는 언제, 어디를 가나 이 원칙과 철학을 지키려 애씁니다. 하다 못해 해외에 나가 호텔 숙소를 이용할 때도 전기, 수도 및 자잘한 용품까지 아껴 쓰고, 방을 나올 때면 불을 끄고 침대도 정리하고 나오고, 일행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앞사람이 사용한 흔적까지 깨끗이 치우고 나옵니다. 왜냐? 남의 것에 충성해야 누군가도 나의 것에 최선을 다해준다는 생각이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런

저에게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작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25:21).
여러분, 기적은 기적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이 지붕을 뚫을 만큼 최선을 다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하무인인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문을 두드렸더니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린 것 아닙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했기에 예수님이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참 생각이란 것이 무섭습니다. ‘대충해야지’ 생각하면 대충하게 됩니다.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해외집회를 마치고 좀 쉬려고 들린 미국의 한 도시에서 예정에 없던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저에게 상의도 없이 일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예배니 어쩔 수 없이 가긴 갔는데, 정말 대충 예배를 인도했습니

다. 처음부터 대충하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뇌출혈로 눈이 터졌습니다. ‘대충’의 결과가 어떠한지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한 명의 성도 앞에서도 십만 명의 성도 앞에서 하듯 똑같이 최선을 다합니다.
위인이요? 당연히 생각에서 비롯되지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23:7)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작은 사람은 결코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큰 사람은 큰 생각에서 이뤄진다는 말씀입니다. 신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란 밑그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밑그림대로 나오지 않고, 건축은 설계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밑그림이요, 설계도면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그린 그 밑그림대로, 설계대로 나오는 작품이요, 결과물인 것입니다. 내 남편의 미래를 알고 싶다고요? 지금 남편의 생각을 들어보면 됩니다. 생각을 들을 수 없습니까? 생각이란 주머니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인생은 ‘생각이 결과’(행6:19)이니깐요.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두령은 ‘못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못 가냐? 충분히 들어간다’ 했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 쉽다고요? ‘그럼 성공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요?’ 하십니까? 지갑 속에 현금을 쥌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면 못 살 게 없지요? 생각이란 주머니 속에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 이런 말씀으로 현금 채우듯 해놓아 보세요. 필요할 때 꺼내쓰면 세상에 못할 게 없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란 지갑 속에 ‘대충’, ‘머슴사상’, ‘얼렁뚱땅’, ‘눈 가리고 아웅’..., 이런 것들로 채워있으면 성수대교 무너지듯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최선’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 다. 그러나 ‘충성’이란 말이 대신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 또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막12:30)로도 표현되고 있고,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2~23)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에 몸소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해도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고(눅22:44), 귀신을 내쫓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눅13:32)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자기 곁에서 죽어 가는 사람을 구원하셨고, 최선을 다해 자기 사명을 이루십니다. ‘다 이루었다’(요19:30)는 말은 최선을 다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대충이란 군이
너를 망하게 한다

‘매사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경기에 임하는 씨름선수가 살아 줄을 단단히 잡듯이, 토끼를 사냥하는 사자가 혼신을 다하듯이 해야 합니다. 습관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성공시킬 수도 있고, 실패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한 느헤미아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이국땅에서 총리대신이 된 요셉처럼, 삼촌 집에서 밤낮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 거부가 된 야곱처럼, 우리도 매사 최선을 다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이 정신으로 험한 파도를 넘어 유럽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매사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내 영혼을 사랑하자

성경은 어느 특정 인물의 이야기도 아니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많은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낙심하고 삶을 포기한다. 또 사업에 실패하면 자살을 선택한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병 낫기를 포기하는 것,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확대하는 행위이다. 죄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붙인다.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든다. 예수는 그 죄를 없애고 인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오셨다. 생명을 죽이는 죄를 제거하려고 오셨다. 주님은 우리가 죄에서 건진 바를 원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를 얼마나 바라셨던지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생명을 주려 하셨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사단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사망을 깨뜨리는 생명을 보여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주님의 생명은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고 교리도 아니다. 그 생명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육체라는 그릇에 생명이 가득 차 있다면 병과 저주와 절망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인간이 병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다. 죽고 싶은 마음의 좌절도 생명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다. 생명이 넉넉한 데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질병도 생명이 넉넉한 데서는 능히 이길 수 있고, 감히 질병이 생겨날 수 없다.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니 붉은 피가 온몸을 힘 있게 돌아 모든 병은 떠날 것이요, 정신도 살아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인 말씀을 주어서 영적인 지원, 영적인 압력을 받도록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절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생명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 고통 속에 사는 것이요, 이것이 타락이다. 예수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예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그를 만나주신다. 사람에게는 오직 병든 것과 죄뿐인데, 주 예수 내 구주 되셔서 나를 살려 주셨으니 내 영혼을 살려야 한다. 절대로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감을 쫓아야 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롬 6:6~7).

신기류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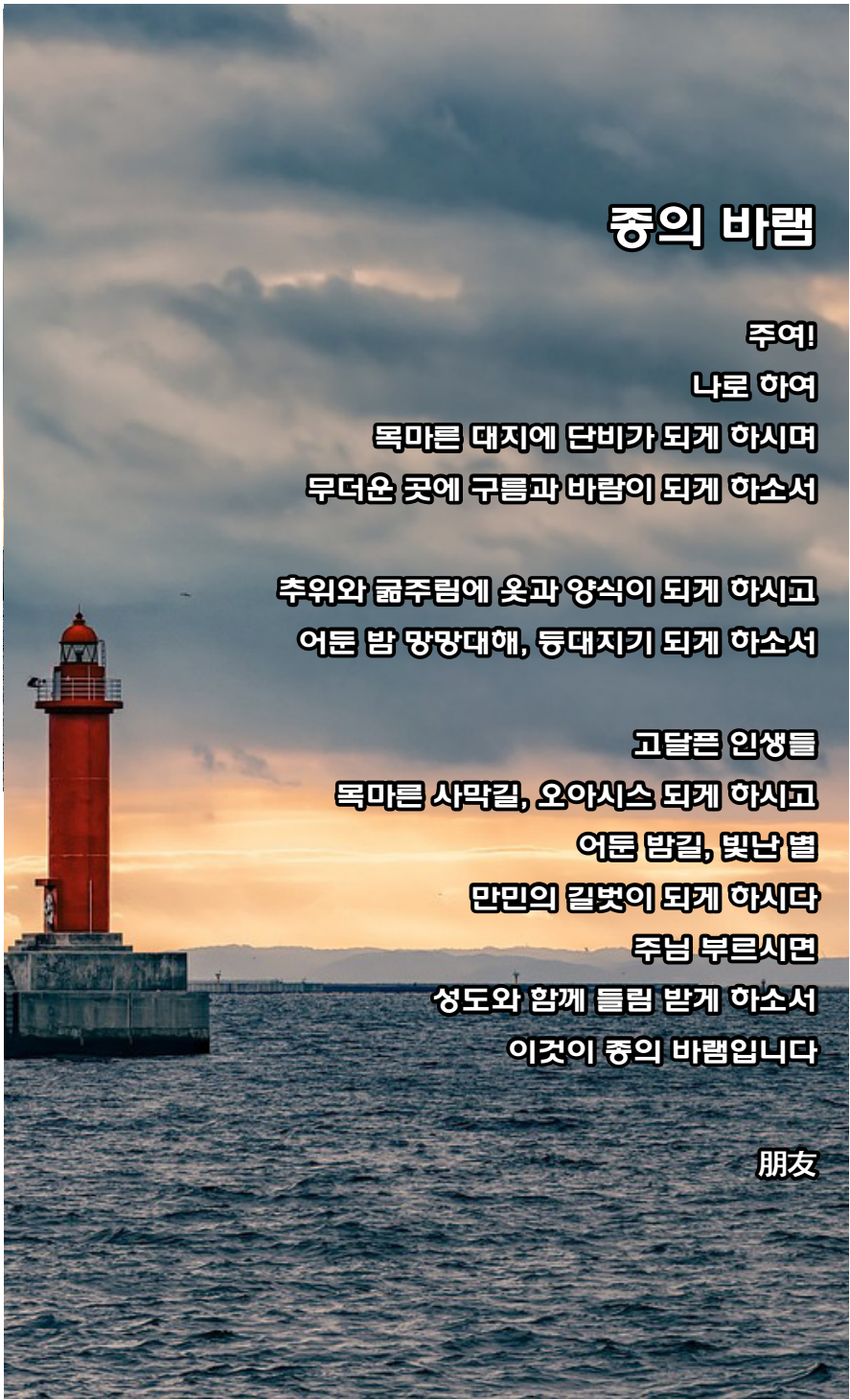
:: 성경에세이 ::

니느웨로 가라

여보게! 자네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스인가, 아니면 니느웨인가? 하나님을 역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 말이네. 나는 당신이 니느웨로 가길 원하네. 왜? 당신을 위해서. 잘 들어보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지.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다시스로 향했네. 문제는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써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으셨지만, 끝까지 요나에게 그 일을 맡기로 하셨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지내게 하심으로 회개시키고 굴복시키셨지.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갔네. 바로 이것이라네. 하나님은 당신에게 뜻한 바를 반드시 관철시키신다네. 꼭 이루신다는 것이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나는 못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대타를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밀어붙여서 사명을 완수케 하셨지. 말 안 듣는 자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회초

리가 필요한 법, 요나에게 그것은 역겨운 물고기 뱃속이었던 거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줘야 했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지. 그런데 안 했네. 버텼지. 그래서 회초리,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맛보아야만 했다네. 여보게!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최고야. 왜냐? 결국 하게 될 일을 맞지 않고 칭찬받으며 하는 게 낫기 때문이야.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고 과감히 돌아서 유럽으로 갔네. 현명한 처사라네. 고집했더라면 회초리를 맞고 유럽으로 갔을 거야. 꼭 맞고 가는 사람이 있네. 꼭 한 대 얻어 터쳐야 일하는 사람이 있네. 어리석은 자지. 이왕 할 것, 안 한다고 버텨서 될 것이 아니라 칭찬받으며 해야지. 맞고 가지 말고, 사랑받으며 가야지. 결국에는 하게 되고, 가게 될 테니까. 니느웨로 가라시면 가면 되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지혜로운 자는 맞지 않고 순종하는 자야.

봉우



중의 바람

주여!

나로 하여

목마른 대지에 단비가 되게 하시며
무더운 곳에 구름과 바람이 되게 하소서

추위와 뭍주름에 옷과 양식이 되게 하시고
어둔 밤 망망대해, 등대지기 되게 하소서

고달픈 인생들

목마른 사막길, 오아시스 되게 하시고

어둔 밤길, 빛난 별

만민의 길벗이 되게 하시다

주님 부르시면

성도와 함께 들림 받게 하소서

이것이 중의 바람입니다

朋友

:: 생명의 말씀 ::

주일은 주님의 안식일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종권 장로의 일화다. 대통령이 된 김대중 씨가 김 장로님에게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런데 장로님은 “저는 노태우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고, 또 영남 사람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도 꼭 해달라고 하더라. 김 장로님은 김대중 대통령이 집에까지 찾아와 부탁을 하니 더는 거절을 못하고는, “정 그러시면 한 가지만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주일은 교회에 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비서실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허락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약속했고, 김 장로님은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수락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을 모시기 위해 얼마든지 주일을 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대통령을 모시는 일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

와의 안식일인즉…”(출20:8~10). 주일은 나의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계신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니 계시면 우리는 버리운 자다(고후13:5).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내가 바쁘다고 논발에 나가니 주님도 억지로 논발에 나가신다. 주일날 식당 문을 여니 주님도 식당으로 나가신다. 혹 너희 말이 주일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을까 하겠으나 토요일에 너희에게 복을 내려 그 소출이 삼일 쓰기에 족할 것이다. 즉 토요일에 거둔 것으로 주일에 먹고, 월요일도 먹고, 화요일까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다(레25:20~22).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일은 나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안식일이다. 주일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이다.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서 주일을 지키자. 예배와 겹치는 모든 일은 유혹이요 시험이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급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임택함 목사

:: 동행하는 삶 ::

:: 귀를 기울이세요 ::

나의 영적 충전소, 기도원

늘 그랬듯이, 올해에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해주실지, 나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올지, 또 어떠한 선물을 주실지 기대되는 마음이었다.

첫날 저녁 집회 때 목사님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많이 시키셨다.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당일 장시간 차량 이동 때문인지 피곤한 느낌이 들고 조금 힘들었다. 그러다 “전혀 기도하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라, 녹을 제거하라!”고 외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힘내서 기도할 수 있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셨다.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며 눈물이 나고 기도가 너무 잘 되었다. 그렇게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새 방언이 터져나왔다. 이런 경험은 오랜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더욱 기도하는데 그 순간 목사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라!’고 외치셨다. 온몸에 전율이 돌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목사님께서는 기도에 힘쓰는 자는 아무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던 나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요즘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시도해보면 좋을지 고민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고, 기도하면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하셨다. 빛이 꺼지면 어둠이 들어오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원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나의 걱정마저도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

지, 또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정 형편에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에 빠졌다. 그런 나를 보며 남편은 그러지 말고 기도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 아차 싶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응답을 주셨는데 다시 이런 걱정으로 돌아온 나의 모습에 회개하였다.

기도원에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시금 생각났다. “주님, 주님은 어떻게 능력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던 일을 반복해서 떠나지 않았다.” 반복이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기도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응답해주시는 것이지만,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염려에 걱정보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결심했다. 역시 기도원은 나의 영적 충전소이다.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Good News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형상이나 주물로 부어 만든 형상들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서 자신들이

정한 방법을 되풀이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만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으며 죽은 뒤에 영생복락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한 제자가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보지 않은 죽은 뒤의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 해답

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영생복락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종교나 철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창작물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 주님을 향한 노래 ::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신학교 입학 준비하던 때의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공학과 연구실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학과 특성상 연구실에 들어가는 것은 대학원까지 진학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고, 실제로 대학원 졸업 전에 연구실을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 들어가자 직전에 3학년 선배 한 명이 연구실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나가게 되었는데, 교수님과 선배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고, 참여했던 각종 실험들에서도 이름이 다 제외되고 배신자 낙오가 찍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도교수님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성격도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게다가 토테미즘(원시공동사회의 종교의 한 형태)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회식이 있었고, 매년 2월이면 고사를 지냈지만 그때마다 저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편지를 들으며, 고사상에 절하지 않고 기도를 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3년간 연구실 생활을 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소

명을 4학년 2학기를 앞두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연구실을 나가고 신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대학원 진학을 코앞에 둔 4학년이 연구실을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때 저의 학년에는 저와 제 동기 딱 2명뿐이어서 한 명이 나가게 되면 남은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목사님께 배운 대로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라면 제가 교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교수님 반응이 부드럽게 나오게 해주시고, 연구실에서 순직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또 교수님이 저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며칠을 기도로 준비하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굳어 있던 교수님의 얼굴에 ‘제가 진로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온화한 미소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제 얘기를 자세히 들으시고는 잘 생각했다며 격려해주셨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과의 정반대 상황이 제가 기도했던 대로 펼쳐진 것입니다. 또 이때까지 저를 가르쳤던 지도교수로서 유익한 조언들을 해주셨고, 추후에 신학교 입학에 필요한 추천서까지 직접 써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의 응원을 받으며 순직히 연구실을 나올 수 있었고, 교수님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모로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왔듯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왔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을 들어서 당신의 자녀들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호민 전도사
fioe154@naver.com

아름다운 추억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으로 ‘여호수아 군대’ 헌금송을 하였다. 이는 서울성전을 이전하며 88체육관 시대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었고, 목사님과 우리 예수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선물하는 찬양이었다. 여호수아 군대 이후 흘러나온 ‘에벤에셀 하나님’ 찬양과 함께 우리 교단의 아름다운 지난 39년의 광야 생활이 화면에 비춰졌을 때, 서울교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왜 저마다 눈물을 흘렸을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철산에루살렘교회를 지나 한국에루살렘교회가 되었고, 마가다락방, 다시 인천 송의성전과 잠실학생체육관, 올림픽공원의 역도, 펜싱, 체조, 사이클, 테니스 등 여러 체육관을 돌며 가는 처치를 이루었던 우리 교회는 강서구 화곡동 88체육관으로 예배장소를 옮기고 무려 28년 동안 이곳에서 긴 추억을 쌓았다. 목사님, 전도사님, 안내위원, 권사, 집사, 성가대원 등 모두가 이곳에서의 추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또, 기도원과 인천 성전을 짓던 추억은 어떠한가. 호텔을 짓느라 벽돌을 나르고 인천 성전을 신축하며 개미부대를 하던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은 늘 함께였다. 젊은이들이 함께한 교육관은 어떠한가. 필자도 기억하는 강남 꽃상가 7층에서 학생부 예배를 드리던 시절, 등촌동으로 교육관을 이전하여 공사를 하던 순간, 다시 대방동으로 이전하여 기도회를 하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지금은 노량진교육관이라는 최적의 장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예수중심교회에 최고의 서울성전을 주실 것을 믿는다.

요즘 부쩍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아름다운 지난 추억들’이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신다. 이는 목사님이 목회 40년에 앞서 광야 생활하며 겪은 성도들과의 모든 순간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 어느 나라 성도보다 ‘교회가 삶인 성도’들이다. 인생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닌 삶과 교회가 일치하는 우리 예수중심교인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송현해 성도
charisma0691@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